리모델링 마친 국립광주박물관 내달 3일 재개관

은가루로 쓴 고려불경

〈국보 제185호-상지은니묘법연화경〉

지역 관람객들에 첫선

대흥사 '금동보살좌상'

"초현대식 전시공간으로 새단장한 박물관으로 유명 국보와 보물 구경하러 오세요."

오는 9월3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하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에 국보 185호인 '상지은니묘법연화경'(橡紙銀泥妙法蓮華經·제185호) 와 '이광사초상화'(제1486호·신한평 작) 등 보물 5점이 추가로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12일 "재개관에 맞춰 국립중앙박물관 등 타지역 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국보와 보물을 추가로 들여와 지역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들여온 문화재는 ▲상지은니묘법연화경 ▲이광사초상화 ▲정지장군 환삼(보물 제336호) ▲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 후불탱(보물 제1367호) ▲대흥사 금동보살좌상(보물 제1547호) ▲대동여지도판목(보물 제1581호) ▲이응도 영정 및 목판(전남유형문화재 제146호) 등 7점이다.

'상지은니묘법연화경'은 은가루로 쓴 고려시대 불경이며, 법화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지난 2004년 환수해온 귀한 문화재다. 부분적인 탈색은 있으나 비교적 선명하게 보존돼 있고,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기본 사상을 담고 있다.

'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후불탱'은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가섭과 아난 등 5존을 좌우대칭으로 배치한 것으로 송광사 소장 불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구도가 간결하고, 섬세한 인물 묘사와 색채감도 매우 뛰어나며 조선시대 탱화의 거장 의겸(義謙)이 주도한 대표작이다.

원교(員嶠) 이광사(1705~1777년)의 70세 초상인 '이광사초상화'는 사진처럼 인물의 표정과 특성을 사실적으로 담아냈으며, 조선시대 초상예술을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도포에 방건을 쓴 이광사의 단호한 얼굴에서 강직한 선비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국보 제185호-'상지은니묘법연화경'

이광사 초상화·금동보살좌상 등 새단장 맞춰 국보·보물 6점 선봬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철종 12년(1861년)에 만든 '대동여지도 목판'은 광주와 주변지역을 담은 목판이다. 피나무판의 앞뒷면에 조각을 하였으며, 일부 해안 도서지역은 목판면의 일부만 활용하고 그 여백에 다른 지역의 지도를 판각했다.

이 밖에 주위에 구멍을 뚫고 철편과 철편을 고리로 연결하여 만든 갑옷인 '정지장군환삼'과 조선시대 불상 예술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금동보살좌상'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해 6월부터 총 공사비 80억원을 들여 연면적 7,055㎡(지상2층, 지하4층)의 전시관 내부의 구조 보강과 전시 시설을 교체했다.

전시장에는 디지털 세대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이 강화되고, LED 조명이 설치됐다. 또 선사·고대문화실은 겨레와 함께 한 쌀문화를 아시아 문화코드로 한 농경문화실 등으로 특성화했고, 농경문화실, 유교실, 아시아실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광사 초상화'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에 빵공장 짓기' 특별한 무대

'김원중 달거리' 콘서트 안치환과 함께

16일 광주콘테츠산업지원센터 영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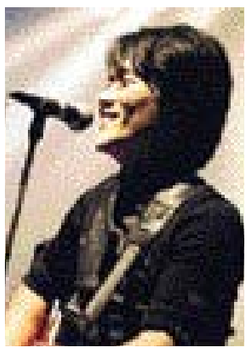
가수 김원중씨는 지난 3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열고 있다.

김씨는 콘서트 티켓을 따로 팔지 않는 대신 공연 관람 후 관객들이 자유롭게 모금함에 넣어준 티켓값을 모아 북한어린이 영양빵공장을 돕는 데 쓰고 있다.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영상관(옛 KBS 광주방송국 자리)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특별한 초대 손님으로 가수 안치환이 함께 한다.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마른 잎 다시 살아나'의 작곡가로 이름을 먼저 알렸던 안치환은 이후 가수로서도 입지를 다져왔다.

〈김원중〉



〈안치환〉

1997년 밴드 '자유'를 결성한 안치환은 이후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소금인형' 등 많은 히트곡을 쏟아냈으며 오는 10월 10집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문의 062-654-36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작품과 결혼정보의 만남

15일까지 김대중센터서 광주MBC웨딩페어 개최

문화예술과 결혼정보가 만난 이색 웨딩페어가 열린다.

광주 MBC는 오는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광주MBC웨딩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웨딩페어에는 웨딩드레스, 예물, 한복, 허니문여행, 가구, 가전 등 결혼관련 업체는 물론 아웃도어, 산부인과 병원 등 20여개 품목, 40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문화적인 감각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로 눈길을 끈다. 최근 뉴욕 전시에서 호평을 받은 이매리 작가는 신혼 가정에 어울리는 작품이나 소품을 '갤러리 포 아트(gallery for art)'를 통해 선보인다.

집들이 선물이나 답례품을 전시·판매하는 웨딩스토리 숍도 운영된다. 이 숍에서는 한국화가 윤남웅의 문패, 도예가 황인옥의 신랑신부의 이미지를 넣은 접시, 금속공예가 김하영의 금속공예 작품, 나주천연염색문화관의 천연염색 작품등 지역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밖에 이번 웨딩페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밥 지어먹기' 캠페인도 펼쳐진다.

문의 062-360-26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물방울 접시'

김하영 작 '금속공예'

고대 옹관 자료모음 '동아시아 옹관묘' 발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연웅)는 한·중·일 고대 옹관의 자료를 처음으로 집대성한 '동아시아 옹관묘'〈사진〉를 최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자료만 정리한 연구서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중국과 일본의 자료까지 망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은 한국편 4권, 중국과 일본 각 1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됐으며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옹관묘 유적의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 편에서는 옹관묘의 성행시기인 전국시대와 진(秦)·한(漢) 시대를, 일본편에서는 야요이(彌生) 시대를 주로 다뤘다. 논고편에서는 각국의 옹관묘 연구방향과 지역별 분포 및 특징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소외이웃 찾아 사랑의 향연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오늘 창립5주년 기념식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의 향연을 펼쳐온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단장 나덕주) 공연과 창립 5주년 기념식이 13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마륵동 남경농원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미례·정해숙·허미라·김성원·채송아·김영록·김상기 단원 등이 출연해 가요, 고전무용, qof리댄스, 판소리, 변검·마술, 각설이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또 봉사단을 활동을 지원한 김봉연, 김병구씨 등을 대상으로 공로패 증정행사를 갖는다.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에 선정, 지난 5월 경북 김천을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전국 순회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80명의 단원과 350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문의 062-434-506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천원으로 누리는 문화충전 16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천원으로 누리는 행복한 문화충전'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천원의 행복'이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린다.

'목관악기의 세계 #2- 클라리넷'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중인 이정석씨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